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장 진 영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지도 이 정 렬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12 월 14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장 진 영

장진영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년 12 월 14 일

## 감사의 글

천학비재(淺學非才)한 제가 이 한편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고마운 노력과 지도편달이 함께 있었기에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 설계에서 영문 초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미소로 격려해 주신 이정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논문이 잘 진행되도록 오탈자 하나까지도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과 이 연구를 허락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선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의 연구방법과 진행과정에서 많은 고견을 주신 이태화, 남정모, 강대룡 교수님, 그리고 논문의 전반적인 감수를 맡아 특별히 배려해 주신 윤인섭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낱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이 모든 배움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진리 앞에는 불구종 불구묵'(不苟從 不苟默)의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아는 만큼 쓰고 말하며 쓰고 말한 만큼 책임지는 학인(學人)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올림

# - 차례 -

<b>I. 서론</b>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흡연자의 정의 .....	4
<b>II. 문헌고찰</b> .....	5
1. 청소년과 흡연 .....	5
2. 청소년 흡연실태 .....	8
3. 흡연 관련요인 .....	9
<b>III. 연구방법</b> .....	14
1. 연구설계 .....	14
2. 연구대상 .....	15
3. 연구도구 .....	15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	16
5. 분석방법 .....	16
<b>IV. 연구결과</b> .....	18
1. 중학생의 흡연실태 .....	18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8
나. 중학생 흡연율 .....	19
다. 흡연시도유무 .....	20
라. 첫 흡연시도연령 .....	22
마. 간접 흡연율 .....	24
2. 흡연자의 흡연양상 .....	26
가. 흡연동기 .....	26
나. 흡연량과 흡연일수 .....	28

다. 흡연장소 .....	32
라. 담배의 구입경로와 접근도 .....	33
마. 흡연학생이 피우는 담배종류 .....	35
바. 흡연학생의 금연의사 .....	37
3. 흡연 관련요인 분석 .....	39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 .....	39
나. 흡연예방교육 이수정도와 흡연여부 .....	41
다. 흡연자에 대한 태도와 흡연여부 .....	42
라.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4
마. 대중매체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6
1)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6
2)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7
3)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9
바. 흡연관련요인 다변수 분석 .....	51
<b>V. 고    찰</b> .....	53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53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55
3. 연구의 제한점 .....	60
<b>VI. 결    론</b> .....	62
<b>참고문헌</b> .....	65
<b>부    록</b> .....	69

## - 표 차 례 -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8
표 2. 중학생의 흡연율 .....	19
표 3. 중학생의 흡연시도 유무 .....	21
표 4. 중학생의 첫 흡연시도 연령 .....	23
표 5. 집 안에서 간접흡연율.....	24
표 6.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	25
표 7. 중학생의 흡연동기 .....	27
표 8. 흡연학생의 하루 흡연량 .....	29
표 9. 흡연학생의 흡연일수 .....	31
표 10. 흡연학생의 흡연장소 .....	32
표 11. 흡연학생의 담배 구입경로 .....	33
표 12. 흡연학생이 주로 피우는 담배의 종류 .....	36
표 13. 흡연학생의 금연의사 여부 .....	38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0	
표 15. 흡연예방교육 이수정도와 흡연여부 .....	41
표 16. 흡연자에 대한 태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3
표 17.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5
표 18.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6
표 19.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	48
표 20.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50
표 21. 흡연관련요인에 대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2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연구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주관하고 본인이 속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위임받아 실시한 ‘세계청소년흡연조사(GYTS : Global Youth Tobacco Survey ; 세계 각국의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은 2단계 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25개교, 6개 광역시 소재 25개교, 7개 지방 소재 25개교를 합하여 총 75개교 6,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흡연율, 간접흡연율, 흡연시도율을 알아보았는데 흡연자의 흡연양상을 성, 학년,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chi^2$ -test를 통해 조사하였다. 흡연 관련요인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흡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 대중매체에서의 흡연이나 금연 메시지 접근 정도에 따른 흡연여부를 각각  $\chi^2$ -test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의 전체 흡연율은 6.4%이며 이중 남학생 흡연율이 7.4%, 여학생 흡연율이 5.5%로 여학생 흡연율보다 남학생 흡연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 전체학생 중 약 26.5%의 학생이 흡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시도율이 증가하였다.

셋째, 중학생 흡연자들의 흡연실태를 보면 흡연자의 56.8%가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1회 흡연량과 흡연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흡연학생의 64.0%가 금연을 희망하고 70.8%의 학생이 최근 1년 안에 금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 학년,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 수준 등이었고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대중매체 혹은 사회행사를 통한 금연메세지 혹은 담배광고의 접근도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율은 기존의 연구에서 조사된 것 보다 높았으며 흡연양상과 실태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흡연은 성, 연령,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흡연자에 대한 태도, 지식수준,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메세지와 담배광고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담배가격의 인상과 담배자판기의 성인 인증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 가능성을 낮추고, 19세 미만자에게 대한 담배 판매행위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규제활동을 보다 구속력 있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영방송에서의 간접적인 담배광고와 케이블 방송, 신문, 잡지 및 각종 청소년 대상 사회행사에서도 담배나 흡연관련 광고 금지를 확대 실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I. 서 론

## 1. 연구 배경

세계보건기구(WHO, 1997)와 11차 세계 금연대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1위로 기록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점 낮아지고, 여학생의 흡연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편 흡연이 주원인이 되는 인체질환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암, 관상동맥 질환, 임신에 따른 합병증과 소화성 궤양 등이 있으며, 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일순, 1992).

일반적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하여 불규칙적으로 흡연을 시도하는 주 연령층은 만 11세~15세로 알려져 있다(Alexander, 1983). 흡연자가 흡연을 처음 시작하여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Leventhal & Cleary, 1980; Flay, 1993), 청소년들이 첫 흡연경험 이후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최초 2~3년 동안의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한 개입기라고 보고되고 있다(이순영, 2002). 금연운동도 이미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지선하, 2000). 따라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개도는 첫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자들

의 양상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전제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려는 많은 국내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부록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미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중독기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대상자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소규모적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나마 매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4,000여명(중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율과 흡연동기, 흡연량,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을 통해 흡연실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를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의 흡연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흡연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인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로 약 6,000여명의 중학생을 균분선정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전체 흡연실태와 흡연 관련요인을 가장 일반화하여 파악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흡연실태와 함께 흡연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중학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담배회사의 담배광고이다(지선하, 2000). 대부분의 광고들은 인체에 대한 흡연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매력적인 흡연 장면과 같이 다분히 상품성을 의식한 이미지 전달식 광고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말초적 흡연욕구를 자극하고 있다(Burton, 1992). 한편 담배광고는 또래나 성인들의 흡연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를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흡연율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청소년들은 대

부분이 담배광고를 접하고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Bovin 등,1993).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1968년 ‘버지니아 슬립’이란 담배광고가 방영된 뒤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1968년 8%에서 1974년 15%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의 흡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담배광고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의 흡연광고나 흡연 장면이 청소년의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는 2004년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관리본부(CDC)주관으로 세계 각국의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청소년흡연조사(GYTS : Global Youth Tobacco Survey)자료를 토대로 활용하였음을 첨언하며, 본 연구를 통해 중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 관련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함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중학생들의 흡연실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들의 일반적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성, 학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흡연양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대중매체속의 담배광고나 흡연 장면과 중학생들의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중매체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넷째, 학교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조사하여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3. 흡연자의 정의**

흡연여부에 대한 정의는 “최근 30일 동안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근 30일 이내 “한 개비라도 담배를 피웠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흡연자로, “흡연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최근 30일 이전에 흡연한 자는 본 연구의 흡연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II. 문헌고찰

### 1. 청소년과 흡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로서 11세부터 20세까지를 말하며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중학교 시절은 13~15세로 전기에 해당된다(김소야자, 1997).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인격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유일경, 2000)

이러한 청소년기는 사회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과 생리적, 생화학적,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으며 정서의 분열과 통합이 교차되는 과도기로(남승희, 1992)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로 표현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분 변화의 주기와 폭이 심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행동은 과격하고 극단으로 흐르기 쉬우며 많은 청소년에게서 의존과 독립, 무관심과 열성, 쾌락의 추구하고 이상주의, 과대 망상적 자신감과 소외감, 희망과 절망, 극단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장연옥 외 1999). Connell(1974)은 특히 청소년기가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이 나타나며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로서,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과정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원호택, 이민규, 1997).

이들은 학교 공부 및 과외 활동으로 인한 주위로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 외로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약물남용, 흡연, 음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흡연은 대표적인 비행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초기에 시작된다. 흡연을 시작하고 불규칙적으로 시도하는 주 연령대는 만 11세~15세로 알려져 있고(Alexander 등, 1983; Coombs 등, 1986), 첫 흡연 이후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Leventhal & Cleary, 1980; Flay, 1993).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흡연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흡연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 형성되는 준비기(preparatory stage)를 겪게 된다. 이때 일부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일종의 성숙한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Perry 등, 1987). 처음 몇 번의 흡연시도는 시도기(trying stage)로 보는데, 이때 주위 또래들의 격려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rad 등, 1992). 이어 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실험기(Experimentation)에는 주로 집단모임이나 미팅 등의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 앞에서 흡연을 한다. 불규칙적인 흡연은 곧 규칙적인 흡연기(regular use)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규칙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흡연을 한다. 결국 흡연의 마지막 단계인 중독기(Addiction)에는 흡연에 대한 심리적 집착이 생기며 니코틴 내성, 금단증상을 동반하여 금연 후 다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Flay, 1993).

청소년기의 흡연행위는 음주, 약물 남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인기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흡연 행위

는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 할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김희경 외, 2002). 특히 18세 이전의 청소년기의 흡연은 세포,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지며 담배의 해독은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오래 피울수록,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은 니코틴 중독을 더 심화 시킨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운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인이 되어 10년 일찍 죽게 되며 또한 각종 암의 발생률이 3배 높으며 이외에도 각종 성인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흡연과 건강, 2000).

US Surgeon General Report(1989)에 의하면 흡연은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위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1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비흡연자 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배, 15~19세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14.4배나 높으며, 20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해도 약 3배의 높은 폐암 사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은 이러한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약물 등 다른 것을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되며(이장현, 1997) 청소년의 흡연의 용납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끼리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박명윤, 1991).

이처럼 청소년기에 시작된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과의 관련성 등 많은 문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2. 청소년 흡연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1988년 1.8%에서 2000년 7.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다시 2.4%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여자 중학생은 2003년 2.3%, 2004년 1.7%였으며 현재는 약 2% 내외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0%를 시작으로 1997년 35.3%까지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에는 15.9%를 기록하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은 가까운 중국(남자학생 흡연율 23%, 여학생 흡연율 5%)이나 일본(남학생 흡연율 8%, 여학생 흡연율 1.5%), 싱가포르(남학생 흡연율 3%, 여학생 흡연율 0.2%)에 비하여 높은 흡연율로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청소년 흡연율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Tobacco Control Countries Profile, 2000).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동기는 남자 중학생에서 '호기심'이 47.1%로 가장 많았고, '친구 따라서'가 11.8%, '멋있게 보여서'가 5.9%였다. 여중생의 경우도 '호기심'이 40.7%, '친구 따라서'가 21.2%, '멋있게 보여서'가 7.5%로 중학생의 경우 남·여 학생 모두 '호기심'이 가장 많은 흡연의 동기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31% '친구 따라서'가 26.4%였고,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59.3% '친구 따라서'가 38.2%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하여 '친구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4).

흡연 학생들의 하루 흡연량은 중학생의 경우 '하루 5개비 이하'가 남자 83.1%, 여자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자 고등학생은 '하루 5개비

이하'가 50.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으며, '하루 6~10개비'가 32.7%로 그 다음 이었다. 흡연학생들의 금연의사는 여자 고등학생이 90.5%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이 88%, 남자 고등학생이 85.4%, 남자 중학생이 73.3%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았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4).

### 3. 흡연 관련요인

흡연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생물학적 요인은 니코틴의 약리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대중매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의도, 스트레스 증가, 자아 존중감 저하, 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inkelstein, 1992).

Grunberg(1991)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나 흡연율이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흡연의 동기나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흡연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Conard 등, 1992)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장과정 및 부모의 지도가 이루어질 기회가 적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전남지방의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김수진, 1998)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가정의 지위환경요인 중 경제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동기에 대한 27개의 전향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Conrad 등, 1992), 또래 친구 및 형제들의 영향이 청소년기 흡연 시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흡연의 시작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일부로서 다른 또래나

어른들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 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흡연을 또래와 하며 또래들은 지속적인 흡연에 대한 기대, 강화 및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이순영, 2002). 정태흠 외(1998)에 의하면 흡연 동기로 ‘친구들의 권유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34.8%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의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정미영외(2001)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64.4%가 처음에 같이 흡연한 사람이 친구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흡연행위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서 각자의 가치기준과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습득하며, 흡연행위나 흡연에 대한 태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임소연, 1996). 즉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가 더 많으며, 가족 내에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영애, 1989). 부모의 흡연은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요하다(Chassin 등, 1990; Sussman 등, 1987). 이영란 등(1991)의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부모 밑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이 금연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율이 2배나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미국 보건원에서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흡연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Hill 등, 2005).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 역시 흡연을 결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청소년의 흡연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지하는 일반적인 지식정도와 실제 흡연행위와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개인적인 인지도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흡연을 통한 기대되는 효용은 물론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인지는 흡연행위에 중요한 예측치이다(Leventhal & Cleary, 1980). 이러한 요인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또래와의 친분관계 및 성숙정도와 연관되어 있다.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이미지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Conrad 등, 1992).

흡연을 피하는 자기효용감은 친구로부터 흡연을 권유받을 때 이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Stacy 등, 1992).

흡연을 하게 되는 몇 가지 개인적 행동양상을 보면 음주와 기타 약물을 사용하거나(Newcomb & Bentler, 1986),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나 반항적 행위와 연관성이 있고(Conrad 등, 1992),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또래집단에 가담하는(Brunswick 등 1984) 특성이 있다. 반면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학업성취가 높고(Chassin 등, 1990), 스포츠 활동이 많으며(Swan 등, 1990) 건강한 식습관 및 육체적 활동이 활발하고(Kelder, 1992), 흡연 제의에 대해 저항하는 기술(Conrad 등, 1992)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장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음주나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대윤(1996)의 연구에서도 현재 흡연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에 대한 적응도가 낮게 나타났다.

Geckova 외 (2002)는 흡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은 개개인의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의지, 태도,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다고 하였고 김상영(1995)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수준과 흡연행태와의 관련성

을 본 연구에서는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의 흡연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광옥(2000), 우은경(2000)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흡연지식수준이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에서 흡연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과 같은 요인 외에도 담배 가격의 인상, 공중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의 확대, 자동판매기 규제 등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손쉽게 얻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weanor 등, 1992) 특히 담배광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흡연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큰 자극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장영희, 1995). 청소년들은 담배광고로 인하여 흡연을 하도록 유도되기도 하는데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청소년들은 가장 광고량이 많은 상표의 담배를 피우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담배 광고가 나간 뒤 그 상표의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예가 그것이다. 담배광고는 청소년 흡연에 있어 사회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USDHHS, 1994). 대부분의 광고들은 매력적인 흡연 모습이나 흡연의 기능적인 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이미지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독립성, 건강미, 모험심 및 젊은이다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는 특히 자아 이미지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강력히 작용하여 흡연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게 된다(흡연과 건강, 2002). 청소년들은 담배광고를 볼 때 담배가 주는 이로움을 선전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가족의 성인흡연자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Pierce 등, 1993). 광고 자체가 젊은이들이 소유하기 원하는 이미지를 찍어냄으로써 젊은이들의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자극한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흡연은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이상적으로 그리는 이미지와의 차이를 줄여 주는 수단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이미지 차이가 클수록 흡연을 하려는 욕구는 증가한다(Burton 등,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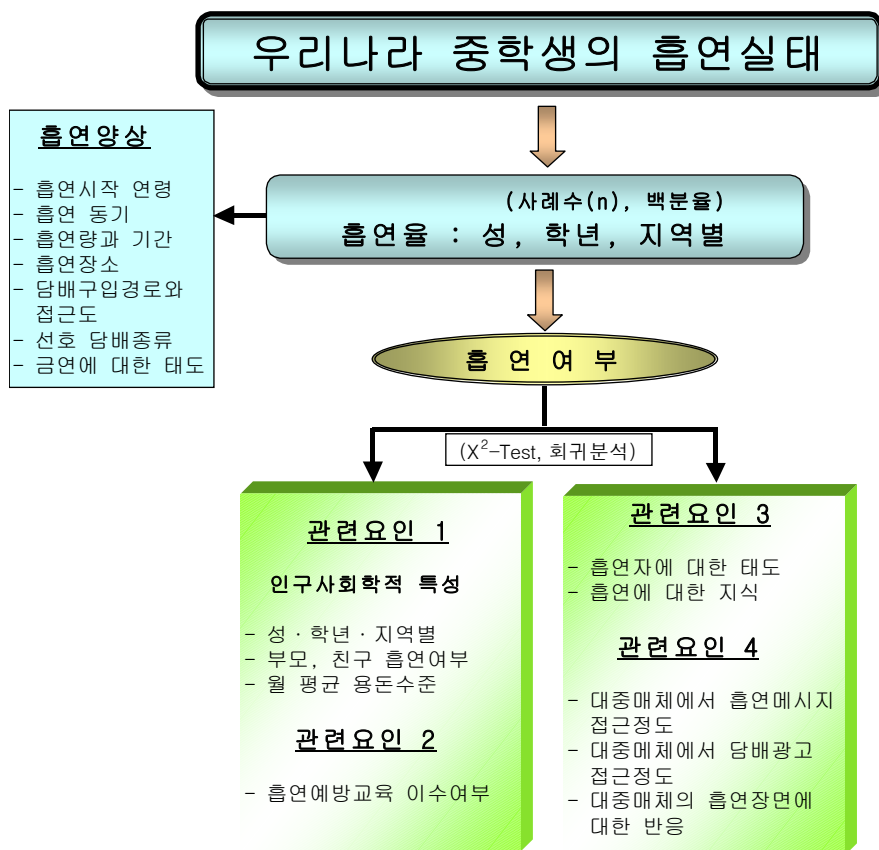
한편 10~14세 사이의 비흡연 미국 아동 2,6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화속 흡연 장면을 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흡연 가능성이 3배나 증가했고(Dalten, 2003),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경 외, 2002)에서는 ‘영화나 TV장면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보면’ 28.8%가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위의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의 흡연은 혼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흡연을 보면서 동경과 호기심을 느끼고 흡연을 자연스럽게 권유 받았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인 대중매체를 통한 담배광고나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게 노출되어 있는 정도와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흡연 관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 흡연양상, 흡연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중매체의 금연메세지와 담배광고 접근율 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관련 변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소재 2,000여개(소재지역, 공·사립, 남·여 공학 여부, 야·주간, 학급수, 학생수 균분산정)의 중학교 명단을 받은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서 2단계 집락 표집을 하였다. 즉 1단계로 서울소재 25개교, 6개 광역시(광주, 부산, 울산, 인천, 대구, 대전)의 25개교, 7개의 지역(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25개교 총 75개 중학교를 학교크기에 비례하여 확률추출 하였고, 2단계로 선정된 중학교의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출에 의해 학교별 학급을 선정하고 그 학급에 속한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응답률은 92%(75개교 중 69개교), 학생 응답률은 95.3%(6,234명 중 5,940명)로 총 5,940여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WHO에서 GYTS(Global Youth Tobacco Survey)를 위해 개발한 56개 문항에 연구자가 29개 문항을 추가하여 흡연 양상에 관한 13개 문항,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18개 문항, 담배와 대중매체 관련 29개 문항,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이수여부 4개 문항, 간접흡연과 관련된 6개 문항, 금연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6개 문항, 기타 9개 문항으로 총 8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표본 집단과 유사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90여명에게 사전조사를 하였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2004년 9월~11월에 실시되었다. 서울지역 25개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는 안산일대학 대학생,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은 조선대 예방의학, 대구와 경북지역은 경북대 예방의학, 부산과 경남 지역은 고신대 보건학과, 기타 지역은 연세대 보건학과에서 연구원을 모집하였으며 전체 연구원의 모집과 교육은 연세대 국민건강증진 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학생들에게 설명 후 개별 동의 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보고 형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조사결과는 12월에 CDC로 전송하였으며 일차 분석 작업은 CDC와 WHO에서 이루어졌다.

#### 5.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window version 8.1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지역별 흡연율에 대한 사례수(n)와 백분율(%)을 구하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자의 흡연양상에 대해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사례수(n)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test를 통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흡연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외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집단간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에 대한 접근도 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hi^2$ -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p-value는 양측검정으로 계산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중학생의 흡연실태

####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학년, 지역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5,615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609명(46.5%)이고, 여학생이 3,006명(53.5%)으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106명(36.8%), 2학년이 1,764명(30.8%), 3학년이 1,864명(32.5%)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 거주자가 1,901명(32.0%), 광역시 거주자가 2,156명(36.3%), 그 외 시·도 거주자가 1,883명(31.7%)으로 광역시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범주	명	%
성	남	2,609	46.5
	여	3,006	53.5
학년	1학년	2,106	36.8
	2학년	1,764	30.8
	3학년	1,864	32.5
지역	서울	1,901	32.0
	광역시	2,156	36.3
	시·도	1,883	31.7
전체		5,615	100

\* 무응답이 있으므로 변수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음.

## 나. 중학생 흡연율

대상자들의 흡연율은 성, 학년, 지역별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최근 30일 동안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6.4%였으며, 남학생 흡연율은 7.4%, 여학생 흡연율은 5.5%로 남학생 흡연율이 여학생 흡연율 보다 조금 높았으며, 학년별 흡연율은 1학년이 3.9%, 2학년이 7.3%, 3학년이 9.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p < .0001$ ).

지역별 흡연율은 서울지역 거주 학생의 흡연율은 8.0%, 광역시 거주 학생의 흡연율은 5.9%, 시도지역 거주 학생의 흡연율은 7.5%로 서울지역, 시·도지역, 광역시 지역 순으로 흡연율이 높았다( $p = 0.0313$ ).

표 2. 중학생의 흡연율

단위 : 명(%)

변수	범주	전체	흡연	비흡연	$\chi^2$ (p-value)
성	남	2,566	191(7.4)	2,375(92.6)	8.64 (0.0033)
	여	2,962	162(5.5)	2,800(94.5)	
학년	1학년	2,073	387(3.9)	1,992(96.1)	48.53 ( $< .0001$ )
	2학년	1,736	512(7.3)	1,610(92.7)	
	3학년	1,832	315(9.4)	1,659(90.6)	
지역	서울	1,872	149(8.0)	1,723(92.0)	6.93 (0.0313)
	광역시	2,110	125(5.9)	1,985(94.1)	
	시도	1,842	138(7.5)	1,709(92.5)	
전체		5,528	353(6.4)	3,175(93.6)	

#### 다. 흡연시도 유무

중학생들의 흡연시도 유무는 성, 학년, 지역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학생 중 26.5%의 학생이 “흡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흡연시도율이 29.4%로 여학생의 22.1%보다 높았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1학년은 18.6%, 2학년은 29.5%, 3학년은 31.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을 시도해 보는 학생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도 지역의 학생들의 흡연시도율은 30.1%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높았다.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과 광역시 거주 학생보다는 시도지역 거주지 학생들이 흡연시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p<.0001$ ).

표 3. 중학생의 흡연시도 유무

단위 : 명(%)

변 수	범 주	있 다	없 다	$\chi^2$	p-value
성	남	757(29.4)	1,818(70.6)	39.19	<.0001
	여	655(22.1)	2315(78.0)		
학 년	1학년	387(18.6)	1,690(81.4)	94.74	<.0001
	2학년	512(29.5)	1,226(70.5)		
	3학년	575(31.2)	1,271(68.9)		
지 역	서 울	179(25.6)	1,395(74.4)	19.71	<.0001
	광역시	522(24.1)	1,611(75.9)		
	시 도	559(30.1)	1,297(69.9)		
전	체	1,549(26.5)	4,303(73.5)		

#### 라. 첫 흡연시도 연령

흡연시도 경험이 있는 1,549(26.5%)명 학생들의 첫 흡연시도 연령 결과는 <표 4>와 같다. 흡연시도 경험이 있는 중학생 중 33.7%의 학생이 13~14세에 20.3%의 학생이 15~16세에 즉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13세~16세에 첫 흡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20.3%는 8세 이전에 흡연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12.2%가 8세 이전에 첫 흡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첫 흡연시도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 간 첫 흡연시도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중학교 1학년의 연령이 14세임을 감안하여 13세 이전까지의 흡연시도율을 보면 1학년의 59.1%, 2학년의 47.7%, 3학년의 36.5%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첫 흡연시도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p<.0001$ ).

지역별 첫 흡연시도 연령의 차이를 보면 서울지역 거주 학생은 13~14세가 43.1%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역시 거주 학생들은 8세 이전에 흡연을 시도한 학생이 21.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시·도 지역 거주 학생의 경우 15~16세에 흡연을 시도하는 율이 22.2%로 특징적으로 높았다( $p<.0001$ ).

표 4. 중학생의 첫 흡연시도 연령

단위 : 명(%)

변 수	범 주	≤8세	9~10세	11~12세	13~14세	15~16세	$\chi^2$ (p-value)
성	남	138(20.3)	92(13.5)	132(19.4)	182(26.8)	138(20.0)	42.39 (<.0001)
	여	70(12.2)	49(8.5)	98(17.0)	243(42.2)	116(20.1)	
학 년	1학년	88(26.0)	46(13.6)	66(19.5)	132(39.1)	6(1.8)	153.35 (<.0001)
	2학년	74(16.3)	52(11.5)	90(19.9)	161(35.5)	76(16.8)	
	3학년	55(10.6)	48(9.3)	86(16.6)	152(29.3)	178(34.3)	
지 역	서 울	49(11.7)	44(10.5)	75(17.9)	180(43.1)	70(16.8)	33.63 (<.0001)
	광역시	93(21.0)	50(11.3)	71(16.0)	134(30.3)	95(21.4)	
	시 도	86(16.6)	63(12.2)	104(20.1)	150(29.0)	115(22.2)	
합	계	228(16.5)	157(11.4)	250(18.1)	464(33.7)	280(20.3)	



**마. 간접흡연율**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정도는 “최근 7일 중 며칠 동안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에 49.9%가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집 안에서 간접흡연율

단위 : 명(%)

변 수	내 용	없 다	1~2일	3~4일	5~6일	7일
성	남	1606(62.0)	419(16.2)	243(9.4)	111(4.3)	213(8.2)
	여	1781(59.4)	493(16.5)	275(9.2)	147(4.9)	301(10.0)
학 년	1학년	1237(59.1)	367(17.5)	189(9.0)	106(5.1)	196(9.4)
	2학년	1090(62.0)	261(14.8)	178(10.1)	74(4.2)	156(8.9)
	3학년	1116(60.3)	303(16.4)	167(9.0)	86(4.6)	180(9.7)
지 역	서 울	1139(60.3)	305(16.1)	176(9.3)	77(4.1)	193(10.2)
	광역시	1269(59.8)	354(16.7)	198(9.3)	107(5.0)	195(9.2)
	시 도	1129(60.2)	309(16.5)	183(9.8)	91(4.9)	163(8.7)
합	계	3537(60.1)	968(16.4)	557(9.5)	275(4.7)	551(9.4)

“최근 7일 중 며칠 동안, 당신은 집이 아닌 곳에서 주위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았나요?”라는 질문은 통해서 집 밖에서의 간접흡연율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학생 중 34.4%가 “간접흡연 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65.7%가 “간접흡연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서울 거주 학생들의 68.9%, 광역시 거주 학생들의 65.2%, 시·도 거주 학생들의 62.9%가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집 밖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표 6.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

단위 : 명(%)

변수	내용	없다	1~2일	3~4일	5~6일	7일
성	남	988(38.2)	947(36.6)	358(13.8)	120(4.6)	177(6.8)
	여	917(30.7)	1128(37.7)	522(17.5)	198(6.6)	227(7.6)
학년	1학년	775(37.1)	760(36.4)	333(15.9)	106(5.1)	116(5.6)
	2학년	587(33.4)	658(37.5)	265(15.1)	107(6.1)	140(8.0)
	3학년	590(31.8)	686(37.0)	306(16.5)	113(6.1)	158(8.5)
지역	서울	586(31.1)	636(33.7)	34(18.2)	134(7.1)	187(9.9)
	광역시	737(34.8)	817(38.6)	316(14.9)	122(5.8)	127(6.0)
	시도	693(37.1)	709(37.9)	273(14.6)	78(4.2)	116(6.2)
합	계	2016(34.3)	2162(36.8)	933(15.9)	334(5.7)	430(7.3)

## 2. 흡연자의 흡연양상

### 가. 흡연 동기

연구대상자 중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흡연 동기는 <표 7>과 같다.

흡연하는 학생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56.8%로 가장 많았고 “친구 따라서”가 18.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7.7%, “담배 맛이 좋아서”가 6.2%, “멋있어 보여서”가 2.7% 순으로 흡연자의 과반수 이상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 따라서” 흡연한다고 응답한 율이 높았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호기심”보다는 “친구 따라서”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성, 학년, 지역별 집단간 흡연동기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중학생의 흡연동기

단위 : 명(%)

변수	내용	호기심	친구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멋있어 보여서	담배맛이 좋아서	기타	$\chi^2$ (p-value)
성	남	341(61.2)	87(15.6)	36(6.5)	15(2.7)	34(6.1)	44(7.9)	42.18 (<.0001)
	여	246(51.7)	103(21.6)	43(9.0)	8(1.7)	30(6.3)	46(9.7)	
학년	1학년	182(57.1)	49(15.4)	22(6.9)	11(3.5)	20(6.3)	35(11.0)	53.84 (<.0001)
	2학년	224(61.5)	62(17.0)	26(7.1)	9(2.5)	20(5.5)	23(6.3)	
	3학년	205(50.3)	84(20.6)	46(11.3)	9(2.2)	26(6.4)	38(9.3)	
지역	서울	213(54.5)	71(18.1)	38(9.7)	13(3.3)	20(5.1)	36(9.2)	31.38 (0.0017)
	광역시	175(52.2)	55(16.4)	33(9.9)	8(2.4)	30(9.0)	34(10.2)	
	시도	230(59.0)	74(19.0)	28(7.2)	11(2.8)	18(4.6)	29(7.4)	
합	계	587(56.8)	190(18.4)	79(7.7)	23(2.2)	64(6.2)	90(8.7)	

## 나. 흡연량과 흡연일수

흡연학생의 흡연량은 <표 8>과 같다. 현재 흡연학생 중 31.7%가 “하루에 2~5개비”를 피운다고 하였고 30%는 “1개비 미만”을 피운다고 응답한 반면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도 2.5%나 되었다. 남학생 흡연자 중 33%가 “하루에 2~5개비”를 여학생의 32.1%는 “1개비 미만”을 피운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학년별 흡연량의 차이를 보면 1학년 흡연학생의 50.6%, 2학년의 38.1%가 하루 흡연량이 1개비 미만인데 반하여, 3학년의 41.0%가 하루 흡연량이 2~5개비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과 함께 흡연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서울과 광역시 학생의 하루 흡연량은 2~5개비가 가장 높은 반면, 시·도지역 학생들의 하루 흡연량은 1개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8. 흡연학생의 하루 흡연량

단위 : 명(%)

변 수	범 주	<1개비	1개비	2~5개비	6~10개비	11~20개비	>20개비	$\chi^2$ (p-value)
성	남	54(28.3)	30(15.7)	63(33.0)	27(14.1)	11(5.8)	6(3.1)	2.58 (0.7647)
	여	52(32.1)	24(14.8)	49(30.3)	28(17.3)	6(3.7)	3(1.9)	
학 년	1학년	41(50.6)	15(18.5)	19(28.5)	4(4.9)	2(2.3)	0(0.0)	57.01 (<.0001)
	2학년	48(38.1)	23(18.25)	29(23.0)	17(13.5)	7(5.6)	2(1.6)	
	3학년	27(15.6)	18(10.4)	71(41.0)	38(22.0)	11(6.4)	8(4.6)	
지 역	서 울	39(26.2)	17(11.4)	54(36.2)	28(18.8)	7(4.7)	4(2.7)	14.95 (0.1338)
	광역시	34(27.2)	21(16.8)	40(32.0)	19(15.2)	6(4.8)	5(4.0)	
	시 도	51(36.7)	26(18.8)	39(28.3)	13(9.4)	8(5.8)	1(0.7)	
합	계	106(30.0)	54(15.3)	112(31.7)	55(15.6)	17(4.8)	9(2.5)	

중학생 흡연자의 흡연일의 분포는 <표 9>와 같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흡연 일을 질문한 결과 34.4%가 1~2일이라고 응답하였고 15.9%는 3~5일, 15.9%는 30일 내내, 14.4%는 20~29일, 9.4%는 10~19일이었다.

흡연학생의 학년별 흡연일수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은 1~2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3학년은 30일 내내가 2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도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학년별 흡연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1~2일 흡연하는 흡연학생의 비율은 시·도지역 학생, 광역시 학생, 서울지역학생 순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 반면 30일 내내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은 서울지역, 광역시 학생, 시·도지역 학생 순으로 높아져 이를 통해 서울지역 학생이 광역시 학생과 시·도지역 학생들보다 흡연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019$ ).

표 9. 흡연학생의 흡연일수

단위 : 명(%)

변수	범주	1~2 일	3~5 일	6~9 일	10~19 일	20~29 일	30일 내내	$\chi^2$ (p-value)
성	남	56(30.4)	29(15.8)	21(11.4)	22(12.0)	24(13.0)	32(17.4)	6.18 (0.2887)
	여	61(39.1)	25(16.0)	11(7.1)	12(7.7)	25(16.0)	22(15.9)	
학년	1학년	44(54.3)	15(18.5)	11(13.6)	7(8.6)	3(3.7)	1(1.2)	75.88 (<.0001)
	2학년	54(47.4)	19(16.7)	10(8.8)	8(7.0)	12(10.5)	11(9.7)	
	3학년	30(17.5)	25(14.6)	11(6.4)	22(12.9)	36(21.1)	47(27.5)	
지역	서울	45(31.8)	23(16.1)	9(6.3)	18(12.6)	21(14.7)	27(18.9)	27.85 (0.0019)
	광역시	36(29.8)	13(10.7)	15(12.4)	15(12.4)	26(21.5)	16(13.2)	
	시도	56(42.4)	31(23.5)	12(9.1)	7(5.3)	10(7.6)	16(12.1)	
합	계	117(34.4)	54(15.9)	32(9.4)	34(10.0)	49(14.4)	54(15.9)	



#### 다. 흡연 장소

흡연학생의 흡연 장소는 <표 10>과 같다. 현재 흡연학생 중 44.5%가 공공장소에서 흡연한다고 응답하였고 15.3%가 집, 11.1%가 학교, 6.0%가 친구 집, 1.8%가 생일잔치, 동아리 모임, 봉사활동, 미팅 같은 각종모임, 0.6%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흡연한다고 하였다.

지역별 흡연 장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03)가 있었는데,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공공장소에서 흡연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2.8%로 광역시 거주학생의 39.3%와 시·도 거주학생의 38.0% 보다 높았다.

표 10. 흡연학생의 흡연 장소

단위 : 명(%)

변수	구분	집	학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친구집	각종 모임	공공 장소	기타
성	남	62(17.0)	40(11.0)	2(0.6)	21(5.8)	8(2.2)	142(39.9)	89(24.5)
	여	50(13.6)	41(11.2)	2(0.5)	23(6.3)	5(1.4)	183(49.9)	63(17.2)
학 년	1학년	35(16.3)	40(18.6)	3(1.4)	15(7.0)	4(1.9)	77(35.8)	41(19.1)
	2학년	47(19.0)	3(5.2)	1(0.4)	16(6.5)	3(1.2)	115(46.8)	53(21.4)
	3학년	32(10.4)	10(11.4)	2(0.6)	15(4.9)	8(2.6)	151(49.2)	64(20.9)
지 역	서울	36(15.6)	9(13.0)	1(0.4)	14(6.1)	5(2.2)	145(62.8)	48(17.2)
	광역시	33(12.6)	47(17.9)	6(2.3)	15(5.7)	9(3.4)	103(39.3)	49(18.7)
	시·도	52(17.5)	13(10.1)	2(0.7)	18(6.1)	4(1.4)	113(38.0)	78(26.3)
합	계	112(15.3)	81(11.1)	4(0.6)	44(6.0)	13(1.8)	325(44.5)	152(20.8)

## 라. 담배의 구입경로와 접근도

현재 흡연학생의 담배 구입경로는 <표 11>과 같다. 이들 중 31.0%가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가판대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 하였고, 21.0%는 “타인에게 빌렸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9.2%는 “타인에게 돈을 주고 사오게 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7%는 “누군가 줬다”라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담배구입경로의 차이를 보면 1, 2, 3학년 모두 “가게에서 직접 구입”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11. 흡연학생의 담배 구입경로

단위 : 명(%)

변수	범주	가게 구입	자동판 매기	타인 대행 구매	빌렸다	훔쳤다	누군가 줬다	기타
성	남	73(32.9)	5(2.3)	19(8.6)	37(16.7)	10(4.5)	15(6.8)	63(28.4)
	여	60(30.9)	1(0.5)	19(9.8)	52(26.8)	5(2.6)	18(9.3)	39(20.1)
학년	1학년	21(20.0)	2(1.9)	6(5.7)	25(23.8)	7(6.7)	11(10.5)	33(31.4)
	2학년	35(24.0)	0(0.0)	11(7.5)	29(20.0)	5(3.4)	15(10.3)	51(34.9)
	3학년	85(44.3)	4(2.1)	24(12.5)	42(21.9)	4(2.1)	9(4.7)	24(12.1)
지역	서울	51(30.5)	3(1.8)	21(12.6)	37(22.2)	5(3.0)	13(7.8)	37(22.2)
	광역시	47(31.8)	5(3.4)	15(10.1)	29(19.6)	8(5.4)	13(8.8)	31(21.0)
	시도	51(30.9)	2(1.2)	8(4.9)	37(22.4)	8(4.9)	11(6.7)	48(29.1)
합	계	149(31.0)	10(2.1)	44(9.2)	103(21.5)	21(4.4)	37(7.7)	116(24.2)

또한 “담배구입 시 나이로 인하여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는 질문에 최근 한 달 이내에 담배를 구입하려 했던 384명의 학생 중  
71.6%는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했다” 28.4%는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마. 흡연학생이 피우는 담배 종류

흡연학생들이 주로 피우는 담배 종류는 <표 12>와 같다. 흡연학생 중 13.0%는 특정 브랜드에 상관이 없었고 6.5%는 디스, 19.3%는 디스플러스, 17.7%는 레종 등의 국산담배를 피웠고 반면 10.8%는 말보르, 20.2%는 던힐 등의 외국산 담배를 피웠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1학년의 경우는 흡연자의 30.0%가 3학년은 39.7%가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흡연학생들의 46.9%, 시·도지역의 흡연학생의 47.1%가 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반면 광역시 지역의 흡연학생의 38.8%가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지역 및 시·도지역의 흡연학생과 광역시 지역의 흡연학생들 사이에 선호하는 담배종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24$ ).

표 12. 흡연학생이 주로 피우는 담배의 종류

(단위 : %)

변수	범주	둘 다	국산담배	외국담배	기 타	$\chi^2$ (p-value)
성	남	23(11.6)	86(43.5)	64(32.5)	24(12.2)	1.03 (0.7945)
	여	16(8.7)	82(44.3)	62(33.5)	25(13.5)	
학 년	1학년	17(18.9)	33(36.7)	27(30.0)	13(14.4)	20.28 (0.0025)
	2학년	19(13.8)	71(51.5)	34(24.6)	14(10.1)	
	3학년	10(5.6)	74(41.3)	71(39.7)	24(13.4)	
지 역	서 울	15(9.4)	75(46.9)	56(35.0)	14(8.8)	20.35 (0.0024)
	광역시	20(15.5)	45(34.9)	50(38.8)	14(10.9)	
	시 도	23(14.7)	74(47.1)	32(20.4)	28(17.8)	
합	계	58(13.0)	194(43.5)	138(30.9)	56(12.6)	

## 바. 흡연학생의 금연의사

현재 흡연학생 중 64.0%는 금연을 희망을 하고 실제 70.8%는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남학생 흡연자의 71.3%와 여학생 흡연자의 76.0%가 “지난 1년 안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금연 시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금연 희망률은 남학생 흡연자의 66.9%, 여학생 흡연자의 63.7%가 “금연을 희망 한다”고 응답하여 금연시도율과 달리 금연 희망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 학생들의 금연 희망률과 지난 1년간 금연 시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서울지역의 흡연자들의 71.0%가 금연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금연 희망률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 지역의 흡연학생 중 74.1%가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금연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연시도 이유는 43.7%가 “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9.1%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3.6%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표 13. 흡연학생의 금연의사 여부

(단위 : %)

변 수	범 주	현재 흡연자	
		금연 희망(%)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성	남	91(66.9)	97(71.3)
	여	72(63.7)	92(76.0)
학 년	1학년	35(57.4)	28(51.9)
	2학년	41(59.4)	51(70.8)
	3학년	95(72.0)	119(81.0)
지 역	서 울	71(71.0)	81(72.3)
	광역시	56(62.9)	63(74.1)
	시 도	51(57.3)	67(66.3)
합	계	178(64.0)	211(70.8)

### 3. 흡연 관련요인 분석

흡연에 관한 관련요인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대중매체 접근정도에서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의 차이를  $\chi^2$ -test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성, 학년, 거주지역, 부모흡연여부, 친구흡연여부, 용돈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다른 변수들(학년, 지역, 부모흡연여부, 친구흡연여부, 용돈수준)을 통제했을 때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흡연할 확률이 0.7배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3학년은 1학년보다 흡연 확률이 1.5배 증가하였다.

부모의 흡연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을 보면 부모가 모두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해 부모가 모두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 흡연할 확률이 2.8배 더 높았고, 아버지만 흡연한 군은 1.3배, 어머니만 흡연하는 군은 1.1배 높았다.

친구가 모두 흡연하는 군은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해 흡연 할 확률이 101.5배 높았으며, 일부분 흡연하는 경우는 14.5배였다.

또한, 용돈수준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을 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용돈이 “5~10만원”인 경우 “1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2.8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흡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 학년,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 수준이었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명(%)

변 수	범 주	흡연군	비흡연군	OR	신뢰구간
성	남	191(7.4)	2,375(92.6)	1.0	
	여	162(5.5)	2,800(94.5)	0.7	0.6~0.9
학 년	1학년	81(3.0)	1,992(96.1)	1.0	
	2학년	126(7.3)	1,610(92.7)	1.3	1.0~1.89
	3학년	173(9.4)	1,659(90.6)	1.5	1.1~2.1
지 역	서 울	149(8.0)	1,723(92.0)	1.0	
	광역시	125(5.9)	1,985(94.1)	0.8	0.6~1.1
	시 도	138(7.5)	1,709(92.5)	0.9	0.7~1.3
부 모	흡연 안 함	132(5.3)	2,377(94.7)	1.0	
	아버지 흡연	226(7.5)	2,799(92.5)	1.3	1.0~1.6
	어머니 흡연	7(12.7)	48(87.3)	1.1	0.3~3.4
	부모 흡연	32(21.1)	20(78.9)	2.8	1.6~4.8
친 구	아무도 없다	31(1.0)	3,197(99.0)	1.0	
	일부분 흡연	320(13.1)	2,124(86.9)	14.5	9.4~22.4
	모두 흡연	53(53.0)	47(47.0)	101.5	58.7~188.3
용 돈	1만원 미만	73(4.3)	1,613(95.7)	1.0	
	1~3만원	139(5.7)	2,300(94.3)	1.2	0.8~1.6
	3~5만원	98(8.4)	1,075(91.6)	1.4	1.0~2.1
	5~10만원	65(17.0)	318(83.0)	2.8	1.9~4.3
	10만원 초과	25(21.7)	90(78.3)	2.8	1.5~5.3

**나.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와 흡연여부**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수업 중 흡연과 건강에 대해 마지막으로 토의 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토의학습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1년 이내에 토의학습을 받은 경우보다 1년 이후에 받은 경우 흡연율이 증가함을 통해 토의학습 기간에 따른 흡연군과 비흡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4).

“지난 1년 동안 치아의 갈색 변색, 주름 생성, 악취 등과 같은 흡연의 영향에 대해 수업 중 배워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흡연율이 증가하였으며 흡연유무와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23).

표 15.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와 흡연여부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x <sup>2</sup>	p-value
토의학습 여부	없다	101(9.0)	1018(91.0)	13.10	0.0014
	1년 이내	195(5.9)	3111(94.1)		
	1년 이후	86(7.0)	1151(93.0)		
흡연의 영향	있다	143(5.6)	2,410(94.4)	12.13	0.0023
교육이수	없다	147(8.3)	1,626(91.7)		
	모르겠다	87(1.9)	1,222(98.1)		

#### 다. 흡연자에 대한 태도와 흡연여부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에 흡연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흡연군은 비흡연군 보다 흡연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에 대해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흡연하는 학생은 “친구가 더 많다”라고 응답한 율이 높았다.

“담배 피우는 남자를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는 문항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등 부정적 이미지에 응답한 율은 흡연군의 4.9%이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지적으로 보인다”, “남자답게 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응답한 율은 22.3%로 흡연하는 학생들은 흡연하는 남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으며 흡연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비흡연군과 흡연군 사이에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태도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표 16. 흡연자에 대한 태도와 흡연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chi^2$	p-value
흡연하는 남학생에 대한 태도	더 매력적	80(15.4)	440(84.6)	167.21	<.0001
	덜 매력적	101(3.2)	3,052(96.8)		
	상관없다	223(10.5)	1,892(89.5)		
흡연하는 여학생에 대한 태도	더 매력적	57(26.3)	160(73.7)	222.06	<.0001
	덜 매력적	158(4.1)	3,729(95.9)		
	상관없다	187(11.2)	1,476(88.8)		
흡연하는 남 학생 교우관계	친구가 더 많다	68(8.9)	700(91.1)	45.38	<.0001
	친구가 더 적다	60(3.5)	1,675(96.5)		
	상관없다	269(8.2)	3,012(91.8)		
흡연하는 여 학생 교우관계	친구가 더 많다	43(8.6)	458(91.4)	63.7586	<.0001
	친구가 더 적다	83(3.6)	2,206(96.4)		
	상관없다	272(9.1)	2,701(90.9)		
흡연하는 남자에 대한 태도	긍정적 이미지	153(22.3)	533(77.7)	280.83	<.0001
	부정적 이미지	249(4.9)	4,847(95.1)		
흡연하는 여자에 대한 태도	긍정적 이미지	78(30.7)	176(69.3)	220.53	<.0001
	부정적 이미지	324(5.9)	5,204(94.1)		

## 라.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 관계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가 당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흡연과 건강에 대한 질문에 “확실히 해롭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이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 더 많았다( $p<.0001$ ).

“흡연이 몸무게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상관없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흡연군이 8.3%, 비흡연군이 91.7%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p<.0001$ ).

또한 “저 니코틴 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덜 유해할까요?”라는 문항에 “차이 없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흡연군 5.5%, 비흡연군 94.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이를 통해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와의 관계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chi^2$	p-value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	확실히 해롭지 않다	9(6.5)	129(93.5)	348.14	<.0001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18(17.5)	85(82.5)		
	아마도 해롭다	250(27.1)	4,819(72.9)		
	확실히 해롭다	131(4.9)	353(95.1)		
흡연과 몸무게의 관계	몸무게 증가	71(4.7)	1,432(95.3)	18.94	<.0001
	몸무게 감소	126(7.0)	1,677(93.0)		
	상관없다	207(8.3)	2,273(91.7)		
저니코틴 담배의 유해성	덜 유해	118(7.0)	1,359(93.0)	31.25	<.0001
	더 유해	55(11.7)	414(88.3)		
	차이 없다	199(5.5)	3,418(94.5)		
간접 흡연의 유해성	절대 해롭지 않다	10(8.3)	111(91.7)	143.54	<.0001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20(22.2)	70(77.8)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	125(15.5)	683(84.5)		
	확실히 해롭다	251(5.3)	4,524(94.7)		

## 마. 대중매체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 1)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의 접근정도에 따른 흡연여부와와의 관계는 <표 18>과 같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금연메세지를 보거나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6.4%가 “본적 있다” 9.4%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비흡연군의 93.6%가 “본적 있다”, 90.6%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3).

“스포츠 행사나 박람회, 콘서트, 공동체 행사 또는 각종 모임에서 얼마나 자주 금연메세지를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7.2%, 비흡연군의 92.8%가 “본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나 사회행사에서 금연메세지와 학생들의 흡연여부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질 문	문 항	흡연군	비흡연군	$\chi^2$	p-value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세지	본적 있다	322(6.4)	4,677(93.6)	8.07	0.0053
	본적 없다	67(9.4)	647(90.6)		
각종 사회 행사에서	본적 있다	309(7.2)	3,956(92.8)	1.23	0.0036
	본적 없다	49(8.0)	562(92.0)		
금연 메세지	가본적 없다	38(4.3)	844(95.7)		

## 2)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와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 접근 정도와 흡연여부와와의 관계는 <표 19>와 같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광고와 선전용 문구를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7.5%가 “본적이 있다”, 5.8%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여 비흡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15$ ).

“지난 한달 동안 TV에서 스포츠 행사 또는 다른 프로그램 시청 시 얼마나 담배브랜드의 이름을 보았습니까?”라는 문항에 흡연군의 7.5%가 “본적이 있다”, 5.8%는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p=0.0005$ ).

신문, 잡지, 각종 사회행사에서의 담배광고와 중학생들의 흡연여부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chi^2$	p-value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	본적 있다	213(7.5)	2,636(92.5)	6.39	0.0115
	본적 없다	160(5.8)	2,616(94.2)		
각종 사회 행사에서 담배광고	본적 있다	186(8.0)	2,129(92.0)	9.37	0.0092
	본적 없다	121(6.4)	1,784(93.6)		
	본적 없다	83(5.6)	1,395(94.4)		
인터넷 담배광고	본적 있다	161(7.8)	1,894(92.2)	9.05	0.0026
	본적 없다	204(5.8)	3,330(94.2)		
TV에서 담배브랜드	본적 있다	250(7.5)	3,102(92.5)	15.20	0.0005
	본적 없다	113(5.1)	2,104(94.9)		
	TV보지 못했다	25(10.6)	210(89.4)		

### 3) 대중매체의 흡연 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대중매체 속 흡연 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의 관계는 <표 20>과 같다. “TV속 배우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는 문항에 흡연군의 11.1%는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35.2%는 “피워보고 싶다”라고 응답하여 비흡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01$ ).

또한 텔레비전 속 배우의 흡연 장면을 보고 실제 흡연학생의 38.2%는 “흡연을 시도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텔레비전을 통한 흡연장면은 학생들에게 흡연을 시도해 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텔레비전 속 흡연 장면뿐만 아니라 만화, 비디오, 영화속에서의 흡연 장면에 대한 반응은 흡연군과 비흡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표 20. 대중매체의 흡연 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chi^2$	p-value
TV에서 배우의 흡연장면	더 매력적	66(11.1)	528(88.9)	197.32	<.0001
	덜 매력적	44(3.5)	1,204(96.5)		
	피워보고 싶다	45(35.2)	83(64.8)		
	별 생각 없다	236(6.5)	3,373(93.5)		
흡연 시도여부	시도 함	116(42.0)	160(58.0)	571.62	<.0001
	시도 안함	257(4.9)	4,998(95.1)		
	흡연장면 본적 없다	14(5.2)	257(94.8)		
비디오에서 배우의 흡연장면	더 매력적	58(10.4)	500(89.6)	126.03	<.0001
	덜 매력적	39(3.3)	1,128(96.7)		
	피워보고 싶다	33(28.9)	81(71.1)		
	별 생각 없다	238(7.2)	3,059(92.8)		
흡연 시도여부	시도	109(38.2)	176(61.8)	473.84	<.0001
	시도 안함	247(5.0)	4,651(95.0)		
	본적 없다	14(3.2)	429(96.8)		
영화에서 배우의 흡연장면	더 매력적	61(10.8)	505(89.2)	52.94	<.0001
	덜 매력적	33(2.8)	1,143(97.2)		
	피워보고 싶다	237(7.2)	3,056(92.8)		
	별 생각 없다	22(4.0)	531(96.0)		
흡연 시도여부	시도	94(37.6)	156(62.4)	406.68	<.0001
	시도 안함	252(5.1)	4,645(94.9)		
	흡연장면 본적 없다	24(5.5)	412(94.5)		
만화에서 흡연장면	더 매력적	90(7.6)	1,099(92.4)	105.2145	<.0001
	덜 매력적	82(5.3)	1,478(94.7)		
	피워보고 싶다	34(30.1)	79(69.9)		
	별 생각 없다	176(6.3)	2,610(93.7)		
흡연 시도여부	시도	49(29.9)	115(70.1)	151.53	<.0001
	시도 안함	219(5.5)	3,782(74.5)		
	본적 없다	113(7.7)	1,354(92.3)		

## 바. 흡연관련요인 다변수 분석

흡연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1>과 같다. 종속변수는 흡연여부이고 성, 학년, 지역, 부모흡연, 친구흡연, 용돈수준, 흡연영향 교육이수여부,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시지, 각종 사회행사에서 금연메세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 각종사회 행사에서 담배광고, TV에서 담배브랜드의 접근정도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흡연예방교육을 이수한 군은 이수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이 1.3배 높았고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시지를 보지 않은 군은 본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은 2.3배 높았다. 이밖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를 본 군과 TV에서 담배브랜드를 본 군은 보지 않은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이 1.1배 높았다.

표 21. 흡연관련요인에 대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범 주	OR	신뢰구간
성	남	1.0	
	여	0.5	0.5~0.9
학 년	1학년	1.0	
	2학년	1.2	0.8~1.8
	3학년	1.3	0.9~2.0
지 역	서 울	1.0	
	광역시	0.9	0.6~1.3
	시 도	1.0	0.7~1.4
부 모 흡 연	흡연 안 함	1.0	
	아버지만 흡연	1.2	0.9~1.7
	어머니만 흡연	1.1	0.2~5.3
	두 분 흡연	2.1	1.0~4.5
친 구 흡 연	아무도 없다	1.0	
	일부분 흡연	17.5	9.4~32.7
	모두 흡연	150.0	61.1~368.2
용 돈 수 준	1만원 이하	1.0	
	1~3만원	1.1	0.7~1.8
	3~5만원	1.5	0.9~2.4
	5~10만원	2.6	1.5~4.5
	10만원 이상	2.6	1.1~6.2
흡연영향 교육이수	있다	1.0	
	없다	1.3	0.9~1.8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시지	본적 있다	1.0	
	본적 없다	2.3	1.5~3.6
각종 사회 행사 에서 금연메세지	본적 있다	1.0	
	본적 없다	1.1	0.7~1.8
신문·잡지에서 담배 광고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8~1.6
사회행사에서 담배광고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7~1.6
TV에서 담배 브랜드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8~1.6

## IV. 고찰

###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흡연율 조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는 “현재 흡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흡연자를 파악하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WHO에서 정한 기준인 “최근 30일 이내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흡연자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흡연율과 함께 집 안과 밖에서의 간접흡연율도 함께 조사하였다.

흡연자의 흡연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흡연량과 금연의사, 흡연행태에 대해 조사를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흡연시작시기, 흡연동기, 흡연장소, 흡연량과 흡연일, 흡연기간, 담배구입경로와 접근도, 금연에 대한 태도 등 흡연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 계획 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매년 실시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청소년 흡연율 조사와 강경아(2003)의 연구에서는 “타인이나 본인의 흡연에 대한 생각”,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흡연자에 대해 학생들의 태도와 흡연하는 학생의 교우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흡연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흡연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전체 대상자들의 흡연 해독 관련 질문 응답률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흡연과 건강, 흡연과 몸무게, 저 니코틴

담배의 유해성 등 흡연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강희숙, 1996),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훈모, 1997),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이상균, 2002)연구 등에서는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학교생활, 용돈 수준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흡연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나 컴퓨터통신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문화가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흡연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전체 중학생 흡연율은 6.4%, 남학생의 흡연율이 7.4%, 여학생의 흡연율이 5.5%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금연운동협회의 남학생 흡연율 2.4%, 여학생 흡연율 1.7%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흡연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흡연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흡연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흡연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시도율과 첫 흡연시도 연령에서 성, 학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서울과 광역시 소재 학생보다는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흡연시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첫 흡연시도 연령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표본조사에 의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학생들의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첫 흡연을 시도한 이들이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기까지는 약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Leventhal 등; 1988) 이들이 규칙적인 흡연자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전부터 특정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 함을 시사한다.

전체 학생 중 49.9%가 최근 일주일 이내 1일 이상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67.3%의 학생은 “집 밖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이 허용된 장소의 출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시·도지역, 광역시, 서울지역 순으로 간접흡연율이 높았으며 이



는 서울지역일수록 학생들이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공원, 콘서트 등의 공공장소가 더 흔하고 그 곳에서의 흡연이 허용됨에 기인한 결과라 추정된다. 특히 PC방은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PC방의 흡연허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저 연령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흡연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큰 동기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4)의 연구결과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흡연동기 또한 비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 연구와 동일하게 “호기심”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친구 따라서”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량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조사 항목이 “5개비 이하”, “6~10개비”, “11~15개비”, “16~20개비”, “20개비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1개비 미만”, “1개비”, “2~5개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흡연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33%가 “2~5개비”, 여학생의 경우 32.1%가 “1개비 미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도 분석하였는데, 흡연량과 흡연일이 남자일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0일 내내” 흡연하는 학생이 15.9%, 하루 흡연량이 “10개비 이상”인 학생이 7.3%로 조사되어 중학생 흡연의 심각성과 아울러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이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담배구입경로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 중 31.0%가 “직접 가게에서 구입” 하였고 2.1%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다고 응답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 하고 담배를 판매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연구에서 2.1%의 대상자가 “담배자판기를 통해”담배를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흡연학생 중 담배 구입 시 28.4% 만이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의 19세 미만 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담배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담배판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시책 역시 실효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국산담배와 외국담배 중 중학생 흡연자들이 선호하는 담배 종류를 보면 한국금연운동협회의 조사결과 “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회의 고등학생 담배 선호율에서와 동일한 결과 “국산담배”가 가장 높아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 중학생들의 선호 담배종류를 보면 “국산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43.5%, 외국산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20.2%였고 특히 학년이 증가할수록 외국산담배 선호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배 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산담배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피운다고 응답한 “디스”의 가격은 1,400원, “디스플러스”는 1,600원인 반면 외국담배인 “말보르”와 “던힐”은 2,000원으로 용돈으로 담배값을 충당하는 학생들은 값이 싼 “국산담배”를 선호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용돈도 증가하여 “외국산담배”선호율이 증가하는 듯하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

한국갤럽(2005) 조사에 의하며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6개월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5.5% 감소하여 담배가격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흡연 관련요인 분석 결과 용돈수준과 흡연여부와 관련성이 있어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가정에서는 자녀의 용돈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분석·평가를 할 수 있었다.

금연 희망 의사의 경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연구 조사결과 남학생 73.3%, 여학생 88.0%가 금연을 희망하는 것으로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66.9%, 여학생 63.7%로 더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지난 1년 안에 금연 시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금연 시도이유가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메시지를 접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금연 시도율도 증가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흡연의 해악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며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운영되어 져야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과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4), 김수진 외 5인(1998), 강희숙 외(1996), 강영아 (2002)의 기존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부모가 흡연할수록, 친구가 흡연할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Hill 등(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습흡연자가 될 확률이 2배 높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게 부모의 흡연 특히 아버지 흡연이 대상자의 흡연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흡연에

방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흡연예방프로그램을 구축 시에 이는 고려되어야 한다.

흡연예방교육 이수정도와 흡연과의 관련성에서는 흡연의 영향에 대해 교육 이수여부와 토의학습 여부에 따른 흡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흡연예방교육이 토의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연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흡연에 대한 지식과 흡연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흡연군과 비흡연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일부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강경아(2003), 우은경(200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광고를 통한 금연 캠페인이 흡연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서미경(2000)의 연구와 동일하게 흡연여부와 대중매체나 각종 사회 행사에서 금연 메시지 접근 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고 진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활용한 금연캠페인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높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저하된다(김택민, 1993).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흡연예방 및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의 인구학적, 심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광고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보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체계화된 연구사업 전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담배광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56.5%가 텔레비전에서 담배브랜드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담배광고가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경기에서 담배광고 선전판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드라마 상에서 담배이름이 선명한 담배갑이 보이는 등 TV에서는 금지된 담배광고가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서미경, 2000) 이는 대상자들의 흡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적인 담배광고를 강력히 제지해야 하며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담배광고 금지도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TV에서 배우의 흡연장면에 대한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하는 배우에 대하여 “더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피워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율이 높았으며, 흡연장면을 본 후 실제 흡연을 시도해 본 대상자들도 있었다. TV 뿐만 아니라 비디오, 영화, 만화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과 영화, 만화에서 흡연장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상자의 선정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군집 확률표본에 의하여 14~16세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표하므로 우리나라 중학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원인-

결과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 한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관련요인을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즉 첫째, 흡연자 수준에 관한 측정시 이전의 연구에서 현재 흡연군, 흡연 경험군, 비흡연군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흡연 경험군을 제외하고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현재흡연자를 흡연군으로 분류하여 흡연군 중 기억에 의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중매체를 통한 흡연장면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서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만화 등의 다른 매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이 반복 되어, 이들 매체가 응답에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 자료는 군집 표본추출에 의한 확률표본 자료이므로 단순무작위표본 추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 파악과 흡연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WHO에서 실시한 세계청소년흡연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75개 중학교 학생 총 5,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의 전체 흡연율은 6.4%인데 남학생 흡연율이 7.4%, 여학생 흡연율이 5.5%로 여학생 흡연율보다 남학생 흡연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도 흡연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지역별 흡연율 차이는 서울지역 거주 학생의 흡연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지역 거주학생의 흡연율이 7.5%, 광역시 거주 학생들의 흡연율이 5.9%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체학생 중 26.5%의 학생이 흡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시도율이 증가하였으며, 시·도지역 거주학생의 흡연 시도율이 30.1%로 전체 학생의 시도율(26.5%) 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첫 흡연시도 연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에 첫 흡연을 시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년이 낮을수록 첫 흡연시도 연령도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학생 흡연자들의 흡연실태를 보면 흡연자의 56.8%가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흡연학생의 44.5%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며

31.0%의 학생이 담배를 가게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흡연학생의 64%가 금연을 희망하고 70.8%의 학생이 지난 1년 안에 금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금연하는 학생들의 43.7%가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금연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흡연여부와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학년,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 수준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친구의 흡연이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OR = 101.53).

다섯째,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p=0.0023$ )와 흡연에 관한 지식에 따른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23$ )가 있었다. 또한 흡연군은 흡연학생에 대해 “더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친구가 더 많다”라고 응답하여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태도 차이가 있었다( $p<.0001$ ).

여섯째, 대중매체( $p=0.0053$ )나 각종 사회 행사( $p=0.0036$ )에서 금연메세지와 흡연여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신문, 잡지, 각종 행사,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와 흡연여부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첫 흡연시도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중학교에서부터는 흡연자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이 병행 운영되어 흡연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흡연 예방프로그램의 내용은 흡연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



여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나 흡연 장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흡연의 첫 단계인 시도기에 있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된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연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셋째, 담배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담배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막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통한 담배 간접광고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과 신문, 잡지, 청소년 대상 각종 사회행사에서도 담배광고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매체에서 연예인의 흡연 장면이 중학생 흡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에서는 흡연 장면을 금지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청소년 대상 영화에서 흡연 장면 상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아, 장주동. 일부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아동간호학회지 2003; 9(1): 66-72
- 강대윤. 인문계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학교생활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강윤주, 서성제.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효과에 관한 연구-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5; 8(1): 133-42
- 강희숙, 최명진, 이진현. 일부 중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6; 13(2): 54-68
- 김상영. 농어촌과 중소도시 초등학생 6학년의 흡연실태.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소야자.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수문사, 1997
- 김수진, 김미자, 이해경 등. 일 도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정신간호학회지 1998; 7(2): 363-383
- 김일순.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과 그 대책, 교육월보 1992; 130: 81-83
- 김택민. 고교생들에 금연교육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희경, 고연화, 문선순 등. 청소년 흡연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 13(2): 376-386
- 남승희.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원, 1992
- 박명윤.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구 1991; 5(2): 120-134
- 서미경. 공익광고를 통한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0; 17(2): 37-56
- 신미영.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 태도, 습관과 건강관련 체력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신성례, 김애리. 청소년들의 흡연행위에 따른 부모의 흡연 여부 및 지각된

- 부모의 태도, 성인간호학회지 1998; 10(2): 302-309
- 심영애. 서울시내 남녀 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심은희.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실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장현.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평택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1996
- 이명선.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 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 18(3):37-56
- 이상균.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2001; 6(1): 15-27
- 이영란, 김현자, 이고봉 등. 흡연과 가족기능지수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가정의학회지 1991
- 임소연.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우은경.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이 흡연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학과석사학위 논문 2002
- 원호택, 이민규. 서울대생의 스트레스 실태조사. 서울대 학생연구 1998; 24(1): 81-91
- 유일경. 청소년 흡연경험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흡연지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장영희. 청소년의 음주·흡연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지선하. 흡연의 현황과 그 역학적 특성, 2000
- 최미숙. 일 도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02
- 한국궤립조사연구소. 담배가격 인상효과, 200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4 중·고등학생 흡연율, 2004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건강,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인흡연율 조사, 1995
- Alexander E. Children abuse, Community outlook 1983; 11(9): 327-31
- Brain SF, John KW, Roger HS et al. Prevention of cigarette Smoking through mass media intervention and programs, Am J Public Health 1992; 8(2): 27-34
- Chassin L, Shreman SJ, Edwards DA. The natural history of cigarette smoking : predicting young-adult smoking outcomes from adolescent smoking patterns, Health Psychol 1990; 9(6): 701-16
- Coombs RH, Fawzy FI, Gerber BE. Patterns of cigarette,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Int J Addict 1986; 21(8): 897-913
- Connel PH.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1974; 6
- Flay BR, Burton D. Correlates of exclusive or combined use of cigarettes and smokeless tobacco among male adolescents, Addict Behav 1993; 18(6) : 623-34
- Geckova A, Van Dijk. Determinations of adolescents ' smoking behaviour: a literature review, Cent Eur J Public Health 2002; 10(3): 79-87
- Hill KG, Hawkina JD, Catalano RF et al. Family influences on the risk of daily smoking initiation, J Adoles Health 2005; 37(3): 202-10
- Huges PH, Baldwin DC, Conards et al. Patterns of substance use in the medical profession, Md Med J 1992; 41(4) : 311-4
- Levental H, Cleary PD. The smoking problem :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al risk modification, Psychol Bull 1980

- ; 88(2): 310-405
- Murrey M, Swan A, Clarke 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1984; 247-252
- Newcomb MD, Benetler PM. Risk factors for drug use among adolescents, Am J Public Health 1986; 76(5): 525-31
- OECD Health data. 1998
- Sargent JD, Beach ML, Dalton MA et al. Effect of parental R-rated movie restriction o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a prospective study, Pediatrics 2004; 114(1): 149-56
- Sussman S, Burton D, Flay BR et al. Project toward no tobacco use :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st-test knowledge evaluation, Health Educ Res 1993; 8(1): 109-23
- Tobacco Control Countries Profile. 2000
- US surgeon general. Reducing in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25years of progress. Washington D.C, 1989
- Winkelstein, M. L. Adolescent smoking : Influential factors, past preventive efforts, and future nursing implicatio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992; 7(2): 120-127

부록 1

청소년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

연번		제 목	대상자	저 자	수 록 잡지명
1	초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흡연실태	서울시내 25개 구 초등학교 25개 3,214명	문정순 (2000)	보건교육학회지
2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흡연지식, 태도, 경험	J지역 15개 초등학교 580명	정영숙 외 1인(2003)	보건교육학회지
3	중	일부 중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3개교 892명	강희숙 외 2인(1996)	보건교육학회지
4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주시내 남자 중학교 1개와 공학 3개교 1400명	이훈모 외 5인(1997)	가정의학회지
5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강원도 춘천 1개 남중과 1개 여중생 912명	김신정 (2001)	아동간호학회지
6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중학교 여학생 433명	김경희 외 1인(2005)	아동간호학회지
7		일부 중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동, 서, 남부 지역 3개교 892명	강희숙 외 2인(1996)	보건교육학회지
8	중 +	서울시내 일부 초중고생의 흡연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양천 초중고생 (701,1015,1444)	이보은 외 4인(2004)	보건교육학회지
9		일부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전라남도 영암군 중고생 2711명	강경아 (2003)	아동간호학회지
10	고	일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광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1,064명	최미숙 외 6인(2002)	정신간호학회지
11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	서울시 일부 남녀 고등학생	강윤주 (1996)	학교보건원
12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건강위험 행위 연구	서울시 일부 고등학생	이선영 (2000)	서울대 보건대학원
13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의 흡연을 및 흡연행태	서울시내 인문계 2교 200명	박진병 외 3인(2002)	가정의학회지

연 번		제 목	대상자	저 자	수 록 잡지명
14	고	일부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일개 시 소재 고등학생 1,380명	이석구 외 2인(2000)	가정의학회지
15		대구지역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련된 요인	대구 시 인문계 고등학생 835명	정태흠 외 5인(1998)	가정의학회지
16		대구지방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대구시 3개 고등학교 600명	김성미 (1997)	중앙의학
17		도시와 읍면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과 흡연 위험 인식도	대구경북 지역 7개 고등학교 1086명	윤용진 외 4인(1996)	가정의학회지
18		서울지역 인문계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조사	서울시 인문계 고교 17개교 1793명	정래순 외 4인(1996)	가정의학회지
19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전	이기영 (1997)	대한간호
20		일부여고생의 흡연실태	경북	이성희 외 2인(1995)	경북의대지

## 부록2

코메디디언 이었던 이주일씨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에 금연캠페인의 불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유족이 필립스 모리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손해배상액 8천 1백만 달러(약 97억원)를 받았고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건강상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국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주관으로 1999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13-15세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조사 (GYTS: Global Youth Tobacco Survey)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인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였다가 2004년 4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GYTS 총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청소년 흡연율 조사(GYTS)를 결정하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4 세계청소년흡연율 조사”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아프리카, 중국, 스페인,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30여 개국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 학교 선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2000여개의 중학교 명단을 받은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선정하였으며, 서울 25개교, 5개 광역시의 25개교, 6개 지방의 25개교 총 75개 중학교내의 5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 75개 학교 중 한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의 흡연 여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소년 흡연율을 표준화하여 청소년 흡연율 감소전략을 개발하여 건강한 한국을 나아가서는 건강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건강한 나라와 세계를 이루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답해주면 될 것이며 설문 결과는 본 연구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며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세계건강을 위한 자료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흡연양상(율)에 대한 13개의 질문 사항입니다.

1. 당신은 한 모금이라도 흡연을 시도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있다.
  - b. 없다.
2. 당신이 처음 흡연을 시도해 본 나이는 언제입니까?
  - a. 흡연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 b. 8세나 그 이전
  - c. 9세나 10세
  - d. 11세나 12세
  - e. 13세나 14세
  - f. 15세나 16세
  - g. 17세나 그 이후
3. 지난 30일(한달)동안 며칠이나 흡연하였습니까?
  - a. 흡연한 적 없다.
  - b. 1~2일
  - c. 3~5일
  - d. 6~9일
  - e. 10~19일
  - f. 20~29일
  - g. 30일 (매일)
4. 지난 30일(한달)동안 보통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
  - a. 지난 30일동안 흡연한 적이 없다.
  - b. 하루에 1개비 미만
  - c. 하루에 1개비
  - d. 하루에 2~5개피
  - e. 하루에 6~10개피
  - f. 하루에 11~20개피
  - g. 하루에 20개피 이상
5. 지난 30일(한달)동안 당신은 보통 담배를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습니까?
  - a. 지난 30일동안 흡연한 적이 없다.
  - b.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마트, 가판대에서 구입하였다.
  - c.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하였다.
  - d.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 사오도록 하였다.
  - e. 누군가에게 담배를 빌렸다.
  - f. 훔쳤다.
  - g.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담배를 주었다.
  - h. 기타
6. 지난 30일(한달)동안 보통 어떤 상표의 담배를 피웠습니까?
  - a. 지난 30일 동안 흡연한 적 없다.
  - b. 특정한 브랜드 없다.
  - c. 디스
  - d. 디스플러스
  - e. 레종
  - f. 말보르
  - g. 던힐
  - h. 기타( )
7. 당신은 보통 담배 한 갑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 a. 흡연한 적 없다.
  - b. 나는 담배를 사지 않거나 또는

- 한 갑으로 구하지 않는다.
- c. 1,000원 미만
  - d. 1,000원 이상 ~ 1,500원 미만
  - e. 1,500원 이상 ~ 2,000원 미만
  - f. 2,000원 이상 ~ 2,500원 미만
  - g. 2,500원 이상 ~ 3,000원 미만
  - h. 3,000원 이상
8. 지난 30일(한달)동안 담배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소비했다고 생각합니까?
- a. 나는 흡연하지 않는다.
  - b. 나는 담배를 사지 않는다.
  - c. 1,000원 이상~5,000원 미만
  - d. 5,000원 이상~10,000원 미만
  - e. 10,000원 이상~20,000원 미만
  - f. 2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 g.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 h. 100,000원 이상
9. 당신이 보통 한 달 동안 쓸 수 있도록 받는 돈(용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획득한 돈 포함)은 얼마입니까?
- a.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
  - b. 10,000원 이하
  - c. 10,000 이상~20,000원 미만
  - d.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 e. 30,000 이상~50,000원 미만
  - f.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 g. 100,000원 이상
10. 지난 30일(한달)동안 당신의 나이 (19세 이하) 때문에 담배를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 a.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산 적이

- b. 없다.
  - b. 그렇다.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 c. 아니다.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이 없었다.
11. 지난 30일(한달)동안 당신은 보통의 담배와는 다른 형태의 담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씹는담배, 흡입담배, 시가, 소형시가, 파이프 담배등)
- a. 있다.
  - b. 없다.
12. 당신은 보통 어디에서 흡연을 하나요?
- a. 나는 흡연한 적 없다.
  - b. 집
  - c. 학교
  - d. 아르바이트 하는 곳
  - e. 친구의 집
  - f. 각종 모임( 생일잔치, 동아리 모임, 봉사활동, 미팅 등 )
  - g. 공공장소( 공원, 쇼핑센터, 거리, 골목, 극장, 콘서트 장, pc방, 노래방 등 )
  - h. 기타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흡연한 적이 있습니까?
- a. 나는 흡연한 적이 없다.
  - b. 나는 더 이상 흡연하지 않는다.
  - c. 없다. 나는 이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

- d.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종 담배 피운 적이 있거나 피우고 싶다는 충동은 느낀 적이 있다.
- e.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다음은 당신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17개의 질문 사항입니다.**

- 14. 당신의 부모님은 흡연하십니까?
  - a. 두 분 모두 하지 않는다.
  - b. 두 분 모두 흡연하신다.
  - c. 아버지만 흡연하신다.
  - d. 어머니만 흡연하신다.
  - e. 잘 모른다.
- 15. 만약 당신의 친한 친구가 담배를 권유한다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 a.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
  - b.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피울 것이다.
  - d. 확실히 피울 것이다.
- 16. 가족 중 누군가라도 당신과 함께 흡연의 해로운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있다.
  - b. 없다.

17. 앞으로 12개월(1년)안에 언젠가 되든,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라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
- b.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피울 것이다.
- d. 확실히 피울 것이다.

18. 지금부터 5년 안에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라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
- b.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피울 것이다.
- d. 확실히 피울 것이다.

19. 누군가 흡연을 시작하였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 b.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 d.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20.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이 피우지 않는 남학생보다, 친구가 많거나 혹은 적다고 생각합니까?

- a.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은 더 많은 친구를 가질 것이다.
- b.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은 더 적은 친구를 가질 것이다.
- c.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거나 상관없다.

21.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피우지 않는 여학생보다, 친구가 많거나

나 혹은 적다고 생각합니까?

- a.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은 더 많은 친구를 가질 것이다.
- b.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은 더 적은 친구를 가질 것이다.
- c.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거나 상관없다.

22.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행사, 파티 등의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혹은 덜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 a.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 b. 덜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 c. 흡연과는 상관없다.

23. 당신은 흡연하는 남학생이 더 매력적이거나 혹은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 a. 더 매력적이다.
- b. 덜 매력적이다.
- c. 흡연과는 상관없다.

24. 당신은 흡연하는 여학생이 더 매력적으로 혹은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 a. 더 매력적이다.
- b. 덜 매력적이다.
- c. 흡연과는 상관없다.

25. 당신은 흡연이 몸무게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a. 흡연을 하면 몸무게가 증가할 것이다.

b. 흡연을 하면 몸무게가 감소할 것이다.

c. 흡연과 몸무게는 상관이 없다.

26.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그렇지 않다
- b.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그럴 것이다
- d. 확실히 그렇다

27. 당신의 가까운 친구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 a. 아무도 없다
- b. 가까운 친구 중 일부만
- c. 가까운 친구 대부분
- d. 가까운 친구 모두

28. 담배 피우는 남자를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 a.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 b. 어리석게 보인다.
- c.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 d.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
- e. 지적으로 보인다.
- f. 남자답게 보인다.

29. 담배 피우는 여성을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 a.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 b. 어리석게 보인다.
- c.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 d.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
- e. 지적으로 보인다.

f. 세련되어 보인다.

30. 당신은 1~2 년 정도만 흡연하고 담배를 끊는다면 건강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 b.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안전할 것이다.
- d. 확실히 안전할 것이다.

다음은 간접흡연에 대한 4가지 질문 사항입니다.

31.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당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 a. 절대로 해롭지 않다.
- b.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 c.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
- d. 확실히 해롭다.

32. 지난 7일 중 며칠 동안, 당신은 당신의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았나요?

- a. 없다
- b. 1일~2일
- c. 3일~ 4일
- d. 5일~ 6일
- e. 7일

33. 지난 7일 중 며칠 동안, 당신은 집이 아닌 곳에서 당신의 주위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았나요?

- a. 없다
- b. 1일~ 2일
- c. 3일~ 4일
- d. 5일~ 6일

e. 7일

34. 당신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 찬성합니까? ( 레스토랑, 버스, 전철, 기차, 학교, 운동장, 체육관, 운동경기장, 클럽 등 )

- a. 예
- b. 아니오

다음은 금연에 대한 당신의 태도의 관한 6가지 질문 사항입니다.

35. 당신은 지금 담배를 끊고 싶은가요?

- a. 나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없다.
- b. 나는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c. 예
- d. 아니오

36. 지난 일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 a. 나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없다.
- b. 나는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c. 예
- d. 아니오

37. 담배를 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a. 나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
- b. 나는 담배를 끊어본 적이 없다.
- c. 1~3개월
- d. 4~11개월
- e. 1년
- f. 2년
- g. 3년 또는 더 오래되었다.

38. 당신이 담배를 끊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나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없다
- b. 나는 담배를 끊어 본적이 없다
- c. 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 d. 돈을 절약하기 위해
- e.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 f.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 g. 기타

39. 당신은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a. 나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없다
- b. 나는 이미 담배를 끊었다
- c. 예
- d. 아니오

40. 담배를 끊기 위해 도움이나 충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a. 나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없다.
- b. 있다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로부터
- c. 있다. 친구로부터
- d. 있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 e. 있다.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구성원들 모두로부터
- f. 없다.

다음은 흡연에 대한 대중매체의 정보 전달과 관련된 당신의 지식을 묻는 질문 사항입니다.

41. 지난 30일(한달) 동안, 당신은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금연 메시지를 보거나 들었습니까?

-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게시판, 포스터, 신문, 잡지, 영화 등에서)
- a. 많이 보거나 들었다.
  - b. 약간 보거나 들었다.
  - c. 듣거나 본 정보가 없다.

42. 스포츠 행사나 박람회, 콘서트, 공동체 행사 또는 각종 모임에 갔을 때 얼마나 자주 금연 메시지를 보았습니까?

- a. 나는 스포츠 행사, 박람회, 콘서트, 공동체 행사 또는 각종 모임에 가본 적이 없다.
- b. 많이 보았다.
- c. 가끔 보았다.
- d. 결코 본 적이 없다.

43.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영화를 볼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배우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 a. 나는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를 보지 않는다.
- b. 많이 본다.
- c. 가끔 본다.
- d. 결코 본 적이 없다.

44. 지난 1년 동안 배우가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드라마, 만화영화, 시트콤, 코메디포함)를 몇 편이나 보았나요?

- a. 0편
- b. 1편

- c. 2-3편
- d. 4-5편
- e. 6-7편
- f. 8-9편
- g. 10편 이상
- h.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다.

45. 한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을 평균 몇 회 보았습니까?

- a. 0회
- b. 1회
- c. 2-3회
- d. 4-5회
- e. 6-7회
- f. 8-9회
- g. 10회 이상
- h.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다.

46. **텔레비전** 속 배우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 a. 배우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 b. 배우가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 c. 나도 배우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다.
- d. 별 생각 없었다.
- e.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거나 텔레비전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47.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우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실제 담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c.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거나 텔레비전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48. 지난 1년 동안 몇 편의 **비디오**를 보았습니까?

- a. 0편
- b. 1편
- c. 2-3편
- d. 4-5편
- e. 6-7편
- f. 8-9편
- g. 10편 이상

49. **1년 동안 본 비디오** 속 배우가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를 몇 편이나 보았나요?

- a. 0편
- b. 1편
- c. 2-3편
- d. 4-5편
- e. 6-7편
- f. 8-9편
- g. 10편 이상
- h. 비디오를 본 적이 없다.

50. **한 편의 비디오**에서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을 평균 몇 회나 보았습니까?

- a. 0회
- b. 1회
- c. 2-3회
- d. 4-5회
- e. 6-7회
- f. 8-9회
- g. 10회 이상

h. 비디오를 본 적이 없다.

51. **비디오** 속 배우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 a. 배우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 b. 배우가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 c. 나도 배우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다.
- d. 별 생각 없었다.
- e. 비디오를 본 적이 없거나 비디오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52. **비디오**에서 배우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실제 담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비디오를 본 적이 없거나 비디오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53. 지난 1년 동안 몇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까?

- a. 1편
- b. 2-3편
- c. 4-5편
- d. 6-7편
- e. 8-9편
- f. 10편 이상
- g. 영화를 본 적이 없다.

54. 지난 1년 동안 본 **영화**에서 배우가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몇 편이나 보았나요?

- a. 영화는 보았으나 흡연장면은 보지

못했다.

- b. 1편
- c. 2-3편
- d. 4-5편
- e. 6-7편
- f. 8-9편
- g. 10편 이상
- h. 영화를 본 적이 없다.

55. 한편의 **영화**에서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을 평균 몇 회나 보았습니까?

- a. 0회
- b. 1회
- c. 2-3회
- d. 4-5회
- e. 6-7회
- f. 8-9회
- g. 10회 이상
- h. 영화를 본 적이 없다.

56. **영화** 속 배우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 a. 배우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 b. 배우가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 c. 나도 배우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다.
- d. 별 생각 없었다.
- g. 영화를 본 적이 없거나 영화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57. **영화**에서 배우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실제 담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영화를 본 적이 없거나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보지 못했다.

58. 지난 일년 동안 **만화 속**에서 흡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 a. 만화를 보지 않는다.
- b. 예
- c. 아니오

59. 지난 1년 동안 본 **만화**에서 흡연 장면이 나오는 만화를 몇 편이나 보았나요?

- a. 0편
- b. 1편
- c. 2-3편
- d. 4-5편
- e. 6-7편
- f. 8-9편
- g. 10편 이상
- h. 만화를 본 적이 없다.

60. 한편의 **만화**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평균 몇 회나 보았습니까?

- a. 0회
- b. 1회
- c. 2-3회
- d. 4-5회
- e. 6-7회
- f. 8-9회
- g. 10회 이상

- h. 만화를 본 적이 없다.

61. **만화** 속 등장인물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 a. 등장인물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 b. 등장인물이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 c. 나도 등장인물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다.
- d. 만화를 읽은 적이 없거나 만화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62.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실제 담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만화를 읽은 적이 없거나 만화 속 흡연장면을 보지 못했다.

63. 당신은 담배 브랜드 로고 모양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티셔츠, 펜, 배낭, 기타 등)

- a. 예
- b. 아니오

64. 지난 30일(한달) 동안, TV에서 스포츠 행사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얼마나 자주 담배 브랜드의 이름을 보았습니까?

- a.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 b. 많이 보았다.
- c. 가끔 보았다.
- d. 결코 본 적이 없다

65. 지난 30일(한달) 동안, 당신은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 광고를 보았습니까?

- a. 많이 보았다.
- b. 몇 개 정도 보았다.
- c. 본 적이 없다.

66. 지난 30일(한달) 동안, 당신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광고와 선전용 문구를 보았습니까?

- a. 많이 보았다.
- b. 몇 개 정도 보았다.
- c. 본 적이 없다.

67. 스포츠 행사나 박람회, 콘서트 등 각종 행사에 갈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담배 광고를 보게 됩니까?

- a. 나는 스포츠 행사, 박람회, 콘서트 등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b. 자주 본다.
- c. 가끔 본다.
- d. 본 적이 없다.

68. 공짜로 담배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69.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담배광고를 본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다음은 학교의 흡연 교육에 대한 4가지 질문 사항입니다.**

70.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흡연의 위험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요
- c. 잘 모르겠다.

71. 지난 1년 동안, 수업 중 같은 또래의 흡연 이유에 대해 토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 a. 있다.
- b. 없다.
- c. 잘 모르겠다.

72. 지난 1년 동안 치아의 갈색 변색, 주름 생성, 악취 등과 같은 흡연의 영향에 대해 수업 중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

- a. 있다.
- b. 없다.
- c. 잘 모르겠다.

73. 수업의 일부분으로 흡연과 건강에 대해 마지막으로 토의 해 본적이 언제입니까?

- a. 결코 토의해본 적이 없다.
- b. 이번 학기
- c. 지난 학기
- d. 2학기 전
- e. 3학기 전
- f. 1년 이상 전

다음은 당신의 기본 정보에 대한 3가지 질문입니다.

74.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a. 12세 또는 더 어리다
- b. 13세
- c. 14세
- d. 15세
- e. 16세
- f. 17세
- g. 18세 혹은 더 많다.

75.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a. 남성
- b. 여성

76.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 a. 1학년
- b. 2학년
- c. 3학년

다음은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끝까지 잘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7. 현재 담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싼 편이다.
- b. 비싼 편이다.
- c. 적당하다.
- d. 잘 모른다.

78. 담배 가격이 한 갑에 얼마 이상이면 담배를 끊겠습니까?

- a. 2,000원 이상 ~ 3,000원 미만

- b. 3,000원 이상 ~ 4,000원 미만
- c. 4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d. 5,000원 이상
- e. 현재 흡연하지 않는다.

79. 다른 사람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80.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양해를 구한다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 할 것입니까?

- a. 예
- b. 아니오

8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흡연 사실을 아시나요?

- a.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b. 예
- c. 아니오

82. 당신은 라이트 담배(낮은 타르양의 담배)가 보통의 담배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a. 라이트 담배는 덜 유해하다.
- b. 라이트 담배는 더 유해하다.
- c. 차이가 없을 것이다.

83. 당신은 앞으로 1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a.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다.
- b.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다.
- c.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다.
- d.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 e.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84.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 a. 호기심에서
- b. 친구들이 피우니까 따라서 피우게 됨
- c.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해서
- d. 담배를 피우는게 멋있게 보여서
- e. 담배 맛이 좋아서
- f. 기타
- g. 담배를 피우지 않음

85.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 a. 화장실
- b. PC방
- c. 노래방
- d. 골목(길가)
- e. 공원
- f. 기타
- g. 담배를 피우지 않음

\* 끝까지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Abstract**

#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middle school student smoking in Korea.

**Jin Young Chang**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yul Lee Ph.D,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for a basis for antismoking campaigns and to prevent adolescents from smoking by analyzing the smoking realities and related factors.

This study are the secondary data of Global Youth Tobacco Survey (GYTS) developed by the WHO and United State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and Prevention to trace tobacco use among youth in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fine the prevalence of youth smoking and passive smo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described the related factors in these students in focusing

the exposure to smoking in the mass media.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chool-based survey, which employed a two-stage cluster sample design to produce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3 to 15 years-old. Seventy-five schools were selected. All schools containing grades 1, 2 and 3 that contained 40 or more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sampling fra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proportion of smoking students in middle school was 6.4% and the rate of smoking in male students(7.4%) was higher than it of in female students(5.5%) similarly case of adults and high school.
2. 26.5% of all respondent had a experience to try smoke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trying smoke in male students was increased by grade more than female students.
3. 56.8% of the smokers answered they have smoked a cigarette prompted by curiosity and 31.7% of the respondents have smoked 2~5 cigarettes in a day and 34.4% of the respondents have smoked 1~2 days in a month.
4. According to the test of significance in regress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x, school grade, smoking parents, friends distinction, pocket money and other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the teenagers with a smoker in the family are more likely to smoke than the ones who don't.

5.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in proportion to the completing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no-smoking( $p=0.0023$ ) and the acquirement of knowledge on smoking( $p<.0001$ ).
6. Finally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exposure to anti-smoking campaign( $p=0.0053$ ) and tobacco advertisement in the mass media and the smoking( $p=0.0036$ ).

All things considered, the health education for tobacco control in school need to be developed from an elementary school.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on discussion why young people start smoking. I suggest that smoking program in school need to be revitalized and be made more accessible for everyone who wish to quit. We were already made a law to ban selling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urvey were showed that this regulation is not effective. So, we have to push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ion, and have to punish the retailers who sell cigarette to people under 19. An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regulation on total banning promoting cigarette advertising and smoking scene in the movie for young people.

Key words : A middle school student, Smoking, Related factors